■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캠페인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스님들 장기기증 줄이어 '값진 보시'

◇통도사 옥련암 캠페인은 대웅전 등 불사 회향식과 함께 열린 문화한마당 속에서 진행됐다.

◇승가사 캠페인에는 등산객들도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11일 통도사 옥련암 · 17일 승가사 법회

장기기증 79 화장 433명 옥련암 문화행사 열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가 11일과 17일 통도사 옥련암과 서울 승가사에서 각각 거행됐다.

양산 통도사 옥련암(주지 법선)은 11일 10년 불사회향과 함께 생명나눔캠페인과 문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88년 시작한 대웅전, 청소년회관, 요사채 등의 불사를 회향하면서 장사익씨의 노래, 풍물패 노름마치의 길놀이 등이 어우러져 멋진 무대를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158명이 화장유언 서약을, 62명이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등 모두 220명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35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통도사 주지 월파, 영주암 주지 범산스님을 비롯 4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법선스님은 "불사회향의 값진 자리에서 생명나눔의 보살행까지 더불어 하게 되어 기쁘다"며 "모든 불자들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서울 하늘높은 절 구기동 승가사(주지 상륜)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자민스님을 초청 생명나눔 실천 특별법회를 가졌다. 연휴로 이어진 공휴일법회인 이날 5백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개최된 행사에서는 275명이 화장유언 서약을, 17명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등 292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자민스님은 "베푸는 삶을 사는 지혜만이 자신과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고 법문했다.

서울=위영란 기자, 양산=천미희 기자
(yryui@buddhapia.com)

권유의 말

"육신 애지중지 하는 것 큰 집착"

초청법사 자민스님

식물을 보더라도 씨앗은 익으면 하나일 뿐이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더 많은 씨앗을 잉태하게 됩니다. 하다 못해 원수에 대해서도 원한을 맺힌 대로 갚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살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원결이 풀리게 됩니다. 또한, 설사 남에게 속게 되는 일을 당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속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자신을 위해 속이지 않는 생활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 · 수 · 화 · 풍(地水火風)의 4대로 이루어진 속절없는 육신이 영원불멸할 것처럼 애지중지 착을 두지말아야 합니다. 내몸은 하나지만 안구 신장 등 각 장기가 다른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보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할 보시실천이 지금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자세를 달리하면 보살행을 제대로 실천할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기증은 둘 아닌 도리 실천"

옥련암 주지 법선스님

장기기증과 같은 생명나눔은 의미 깊고 값진 대불사입니다. 나의 장기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 둘아닌 도리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량 불사에 온갖 정성을 다하듯이 이 생명을 나누는 불사에도 우리 불자들은 마음을 다해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고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창조가 되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혼자인 듯 하지만 우리 모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으므로 나의 보시로 새생명을 얻은 이는 나를 복되게 하는 인연이 되어 함께 할 것입니다.

화장문화 선도에도 불자들이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죽고 나면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것은 묘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입니다. 훌륭히 살다갔다면 묘자리가 없어도 후손들은 영원히 그 삶을 기릴 것입니다.

동참자 명단

장기기증 서약(79)

▲통도사 옥련암=기산스님(통도사) 도응스님(극락암) 범산스님(영주암) 법선스님(통도사 옥련암) 영월스님(장곡사) 정로스님(통도사 서운암) 정여스님(보현선원) 강현숙 권양수 김광석 김말기 김미옥 김송림 김우숙 김윤숙 김인란 김정미 김주영 김필숙 김향덕 김혜인 남인양 남정자 문 경 민외조 박복순 박애자 박은아 박지원 박창숙 배연이 백순희 서경애 서원일 송옥순 송준영 안명희 양은지 양태영 우영숙 윤귀남 이경출 이진호 이춘남 이화심 임길례 임인기 전수연 정정숙 정징원 조정숙 조창국 주언정 지은아 차선아 최귀옥 최영관 최영덕 최영민 최희진 허도익 현미경

▲승가사=강순남 민춘자 박미경 박미연 박수성 백순희 서정희 서채현 이전희 장정임 전복윤 정길자 정종일 최금옥 최종필 최현백 최희진

화장유언 서약(433)

▲통도사 옥련암=도언(통도사) 도응 법선(옥련암) 보성(보승사) 성월 영로(통도사) 정각(문수사) 진철(통도사) 청명(통도사) 청일 청호(동해사) 태민(부산 대흥사) 태영 현운(부처님절) 현초(통도사) 효산(통도사) 강대훈 강소금 강정희 강현숙 고석진 고영상 구옥선 권병훈 권양수 김광석 김근수 김기산 김동욱 김말기 김미옥 김미화 김복선 김부경 김분술 김석장 김성룡 김순녀 김순녀 김순자 김영분 김영준 김우숙 김원태 김윤숙 김을년 김인란 김정미 김정희 김종수 김치관 김타관 김탄임 김태숙 김향덕 김현수 김혜인 김홍숙 김휴호 남인양 남정자 문 경 문정순 민외조 박병우 박복순 박순부 박영진 박은아 박정명 박정자 박지원 박찬현 박창숙 박한주 반인순 배연이 백순희 서경애 손선남 손행련 송옥순 송준영 신매선 신윤희 심옥자 안명희 안상남 양은지 양정미 양태영 양황자 양효명 오동희 오상환 오운기 우영숙 윤영복 윤영일 윤종배 이경출 이남진 이두순 이득자 이민정 이봉열 이봉중 이상강 이상민 이선덕화 이세경 이순직 이승학 이신자 이옥선 이원심 이정근 이종관 이주홍 이진숙 이진호 이춘남 이태순 이화심 임길례 임말연 임병관 임인기 전명숙 전수연 전정하 정경숙 정경아 정대현의 조무량득 조밀순 조인자 조정숙 조창국 주언정 주인태 지은아 진여성 차선아 차현주 최귀옥 최대근 최소광 최영관 최영덕 최영민 최정윤 최희진 하형임 한현숙 허도익 현미경 홍영준

▲승가사=김만준 김옥연 김은혜 김인경 김정각심 김정숙 남궁원 문혜숙 박선미 박수성 박은주 박일주 박정민 박찬호 손봉식 송세덕 신영애 신종연 윤성자 윤재철 이무탁 이반야행 이봉순 이선희 이수연 이은주 임병안 임송월 임슨덕 전수진 정길자 정옥채 정욱경 조현휘 최종필 최희진 한성희 백순희 최금옥 서정희 강순남 최현백 전복윤 서채현 장정임 정종일 박미경 강병일 고광철 고영주 고인숙 고준자 구은미 권오숭 김강영 김기관 김기오 김명노 김묘순 김미수 김미숙 김선자 김성희 김애경 김영식 김옥화 김재분 김정중 김정희 김준서 김택주 김형년 김홍민 민미자 박계자 박동순 박상현 박성태 박세록 박소현 박순찬 박일헌 박진현 배금자 서금주 서재표 석정환 설정덕 소행연 손동대 송화자 신석규 신용철 신인숙 안기철 안진우 양영단 오강석 오용석 오진석 우계숙 윤미화 윤준호 이숙 이강우 이경아 이동윤 이상철 이영례 이완희 이재혁 이정숙 이정숙 이정옥 이충규 이태진 이형순 인성호 임순희 임옥선 장경화 장성민 전오희 전정열 정선주 정세광 정순자 정윤성 정종배 정하건 조경식 조기순 조수진 조윤석 조일용 조진현 주기원 최병대 최순자 최정분 최정숙 최지현 최현희 피성철 한금자 허남영 홍영기 황세진 황영숙 김병구 류청 조경희 김영숙 이숙희 노영숙 이명례 송기섭 박선영 박은선 김현미 백경숙 윤경철 이미자 박옥남 류혜영 박장수 천승택 방영주 박성신 김동현 심상덕 김선민 노만기 정환수 최종광 허대현 황명금 민경부 조충권 강승완 백상희 최성철 한두연 권명희 박정자 신승철 임재만 장준환 장선희 김미성 김선주 전영남 정정환 노현길 김정화 송영진 김보경 전병국 조민환 이재희 전계환 김진천 권민 한양숙 박미란 이상숙 박성화 유중희 유영미 김종채 권경숙 김재연 송순영 송기석 남인철 유인배 김대중 이옥순 우정욱 이용생 최은주 정미경 서한길 김병현 김남순 이정옥 황현주 한경수 김문철 이춘성 홍지영 이명란 이해진 오갑순 김상옥 조명희 오완숙 권원식 김충식 김영미 장계옥 정호섭 백미연 신형철 최동혁 권귀순 김경현 임경화 김무선 이소희 김재우 강윤정 조명림 이건준 김상호 서현정 류강렬 조규영 박현진 안철현 오복자 김은경 김정수 주선옥 김철현 김옥희 유종숙 서홍식 류재목 김현정 심재화 김형석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02)734-8050

이모저모

승가사 후원 신청자 17명

○… 승가사 생명나눔 공동캠페인장은 후원신청자가 그동안의 법회 가운데 최대의 수치를 기록하는 경이를 보였다. 연휴인 공휴일이라 법회 동참불자는 기대에 못미쳤으나 월 정기 후원자로 활동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17명이나 접수됐다.

승가사 관리인도 후원

○… 승가사에서 첫 후원자로 1만원을 접수한 정태철씨(54세)는 10년동안 승가사 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정씨는 "돈으로 돕는 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 아니냐"며 장기기증에 서명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지적하기도.

등산온 기독교인 동참

○…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최희진씨(31세 · 홍은중 교사)는 등산하다 승가사를 찾았다며, 좋은 캠페인에 뜻을 같이 한다면서 사후 각막 장기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접수해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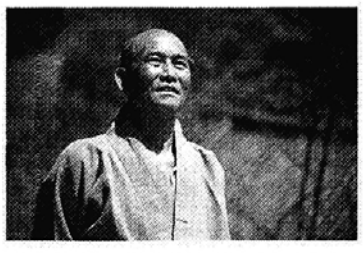
부산 영주암 법회요청

○… 옥련암 주지 법선스님을 비롯 통도사 기산스님, 극락암 도웅스님, 영주암 범산스님, 보현선원 정여스님등 스님들이 장기기증에 많이 동참. 특히 부산 영주암 주지인 범산스님은 "너무 값진 행사"라며 "영주암 신도들에게도 생명나눔의 장을 마련해 주고 싶다"며 다음 캠페인 법회를 영주암에서 할 것을 제안하기도.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 檀단 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예정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화제의 신간

해서 명리진평

해서 조 영 수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혜서 신명리진평은 자평서(子平書), 적천수(適天殊), 궁통보감(窮通寶鑑), 명리정종(命理正宗), 잡론구결(雜論口訣), 추명가(推命歌)등 고서(古書) 전부를 하나로 묶어 알기쉽게 완성시켰습니다.

▸▸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이책을 출간하기 위해 필자는 오랜 연구노력끝에 5년간에 걸쳐 완성시켰습니다. 우리의 역학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주학핵심비결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 전국 서점 판매중 ※

우리말 21C 최신판 대운만세력

해서 조 영 수 지음
4×6배판/ 값 15,000원
신국판/ 값 30,000원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여는 사람은 세월(철)을 알고 행해야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쓰기와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관음역서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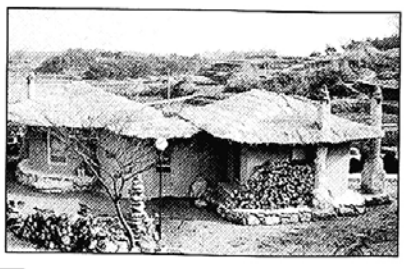
1. 해서 명리진평 신국판/해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해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해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해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25,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임,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大)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祥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륜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륜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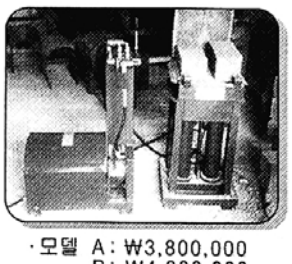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관음출판사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